

구한말 주한 미국외교관 퍼시발 로웰

화성인 존재, 과학적으로 주장한 천문학자

朴 星 來

〈한국외대 인문대학장 / 과학사〉

『지금 화성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화성인의 침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성사람들이 지구를 공격한다는 즐거리로 쓰여진 영국작가 웰즈(H.G.Wells, 1866~1946)의 소설 「우주전쟁」은 거의 1백년 전인 1897년의 작품이지만, 그것이 라디오로 방송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박진감 때문에 정말로 화성인이 공격을 시작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혼란이 일어날 지경이었다고 전한다.

화성인의 존재 주장

화성에 사람은 커녕 저등식물조차 살지 못한다는 사실은 1976년 6월과 7월 미국의 화성탐사선 바이킹 1호와 2호에 의해 밝혀졌다. 그런데 어떻게 옛날사람들은 화성에도 지구인간 못지않은 지능을 가진 화성인이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던 것일까? 이 화성인의 존재를 가장 그럴듯하게 과학적으로 주장하고 나서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 한 사람은 미국의 대표적인 천문학자 로웰(Percival Lowell, 1855

~1916)이었다.

하버드대학 출신으로 평장한 부자였던 로웰은 아리조나의 산속에 사설 천문대를 만들고 1894년 화성의 접근을 계기로 화성 촬영을 계속해 수천장의 사진을 찍어가며 화성연구에 몰두했다. 그 결과 1895년 「화성」이란 책을 발표했는데, 화성에는 물이 부족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지능이 아주 높은 인간이 교묘한 수리시설을 해 놓은 것이 화성의 운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화성에 운하같은 긴 줄이 열려있는 듯이 보인다는 주장은 전에도 있었고, 로웰은 이를 근거로 그런 운하를 건설할 만한 화성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것처럼 정교한 운하가 화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면 대단한 지능을 가진 화성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화성인 이야기는 그후 과학소설의 단골메뉴가 되어 오늘에 이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인공 로웰이 우리 역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에 나온 민영기, 우종욱, 윤홍식 교수의 「교양천문학(형설출판사,

1993)에는 외계의 생명체 문제를 다룬 제10장에서 「로웰은 한때 외교관으로 구한말 우리나라 주재 외교관으로도 활동했던 인물이다(p.339)」라고 써어 있다. 로웰은 정식 외교관으로 활동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고용했던 최초의 국제통역이었고, 그 자격으로 한세기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갔던 그는 한국을 서양에 소개하는 책을 영어로 남기기도 했다.

최초의 국제통역관

1883년 조선정부는 처음으로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단군 이래 우리나라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들은 보빙사행(報聘使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882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조선정부가 미국의 외교관 파견에 대한 답례로 이들을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을 특명전권공사라 할 보빙사로 하고, 홍영식(洪英植, 1855~1884)이 부단장, 서광범(徐光範, 1859~1897)이 종사관이었던 이 사절

1885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영문서적으로 한국소개

단은 8명의 조선인과 중국인·일본인·미국인 통역 한명씩이 더해져 모두 11명의 일행이 태평양을 건넜다. 이 가운데 바로 미국인 통역이 로웰이었다. 그는 사절단이 귀국할 때 다시 조선에 왔다가 돌아갔고, 1885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써서 영어로 한국을 소개했다. 이 때 수행했던 5명의 조선인들은 유길준(兪吉濬), 현흥택(玄興澤), 최경석(崔景錫), 고영철(高永喆), 변수(邊綏) 등인데, 이들 가운데 몇몇은 우리 역사 특히 과학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남게 된다.

1883년 미국에 사절단 파견

미국 보스톤의 명문출신인 로웰은 1876년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와 있던 중이었다. 1883년 7월14일 고종에게 작별을 고하고 미국으로 떠난 보빙사와 일행은 8명의 조선인(에다가 중국인 통역 한명(吳禮堂)이 따라갔을 뿐이었다. 이들은 일본에 들렀다가 미국의 주일공사 빙햄(John Bingham)의 추천을 받아 영어 통역으로 로웰을 즉석 채용했던 것이다.

로웰이 언제 천문학에 열을 올리기 시작 했는지 아직 연구하지 못했지만, 아마 그는 1890년 이전부터 이미 화성에 운하가 있다는 학설과 화성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관심으로 정열을 불태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조선사절단을 미국에 안내하고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그의 머리속에서는 끊임없이 화성에 대한 관심이 꿈틀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1877년 이탈리아의 스키피렐리(Schiaparelli)는 새로운 화성지도를 발

표하여 학계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해에 지구에 접근했던 화성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에 운하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래 스키피렐리가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탈리아말로 「까날리(canali)였을 뿐이어서 그것이 꼭 지혜를 가진 우주인이 만든 운하라는 뜻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이 표현은 영어로 번역도 되고, 또 대중적인 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인공적인 운하라는 의미의 영어(canal)로 확정되고 말았다. 그리고 화성인의 존재를 주장하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자 스키피렐리 자신도 그것을 화성인이 만든 운하라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명해져 있던 무선전신의 발명자 마르코니는 우주 저쪽에서 알 수 없는 무전신호가 오고 있다고 주장하여 화성인이 무전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사람들은 사하라사막에 유럽 크기의 반만한 거대한 직각삼각형을 그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여줌으로써 화성의 천문학자들에게 지구에도 지혜를 갖춘 인간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자고 나서기도 했다. 또 돈많은 사람들은 화성인과 교신(交信)에 성공하는 과학자에게 거대한 상금을 주겠다고 나서는 일도 생겼다. 웰스가 화성인의 지구 침략을 주제로 「우주전쟁」을 쓴 것은 바로 이런 유행에 맞춰 일어난 일이었다.

1894년 로웰천문대 세우

1894년 로웰이 고도 6천5백피트인 아리조나주 홀랙스태프에 로웰천문대를 세운 것은 바로 화성인을 찾으려는 그의 집념 때문이었다. 그가 「화성의 언덕」이라 불렀

다는 이 천문대는 지금도 세계 굴지의 천문대로 남아 있다. 화성 관측이 쉬운 때면 하루 백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가며 화성의 운하와 화성인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힘쓴 로웰의 노력은 당시에는 세계적 화제가 되었지만, 결국 잘못된 생각이었음이 밝혀졌다. 로웰은 또 명왕성의 존재를 예언하고 그 발견을 위해 죽을 때까지 노력한 천문학자였다. 그러나 로웰의 천문학자로서의 위상은 이것으로도 별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다. 그는 질긴 노력을 계속했지만, 명왕성을 찾아 확인할 수는 없이 죽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에서 그가 위로받을 수 있었다면, 그의 제자로 그의 천문대에서 그 발견을 위해 힘쓰던 다른 천문학자(C.W.Tombaugh)에 의해 그것이 드디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1930년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 발견되자 여기에는 영어로 Pluto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별에 이런 이름을 주게 된 것은 그 첫 두글자(P.L)가 바로 피시발 로웰의 이름 첫 글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개화기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로웰은 당시의 우리나라 인사들과 깊은 교분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윤치호(尹致昊) 일기에는, 그가 1884년 1월26일(양력 2월22일) 최경석, 로웰, 그리고 다른 몇 사람과 함께 기생 4명을 데리고 화계사에 놀러 갔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앞으로 로웰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천문학자로 보다는 개화기의 조선에서 활약한 그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에게 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명왕성 영어표기 Pluto의 처음 두글자 P·L은 로웰의 이름 첫 글자들